

골프연습 나선 尹, 트럼프와 회동 추진... “긴밀히 소통 중”

尹 대통령, APEC·G20 참석
남미순방 계기 트럼프 회동 예측
다만, 아직 바이든 대통령 재임중
정부, 회동의 형식·내용에 고민
첫 의제 방위비·北 비핵화 꼽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교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언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양측에서 조속한 시일 내 회동을 하자고 밝힌 만큼, 올해 중 만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당장 이달 중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미 ‘골프 애호가’로 유명한 트럼프 당선인과 원활한 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을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오전 약 12분 동안 전화 통화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한 바 있다. 이미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선자 윤곽이 나온 지난 6일(현지시간) 조현동 주미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자 인수팀 거점인 미국 플로리다주 라라라고로

이동했다.

이같은 빠른 대처가 있었던 만큼 첫 회동 시기 역시 조율 중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직 재임 중이고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회동의 형식과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2016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 대면한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미국 대선 9일 만에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찾아간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비격식 ‘친교 행사’ 형식으로 면담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회동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지난 1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안보 분야의 변화를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걸림돌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선인 측은 (행정부) 인선과 국내(미국) 정책 아젠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조속한 미팅을 위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

다는 의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전망이다. 만약에 회동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자외교를 이어왔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이에 적극 동참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의 중심축이 미국인 셈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했고, 윤 대통령 역시 “연내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한미일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순방 기간에 한일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생명연,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 후보물질 발굴

손미영 박사 “위 오가노이드 활용
신약개발 성공률 높일 수 있을 것”

국내 연구진이 위암의 위험을 6배 높이는 헬리코박터균 치료 물질을 발굴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항생제를 이용하던 기존 헬리코박터균 제거 치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위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을지 기대가 높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부 손미영 박사 연구팀은 위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를 이용해 헬리코박터균과 파일로리(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한 위세포 손상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치료하는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은 헬리코박터균이 위장 점막에서 기생하며 위염, 위

궤양, 십이지장 궤양 및 위선암 등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감염률 역시 40~50%로 추정되고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환자는 일반인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도가 3~6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항생제를 이용하던 헬리코박터균 치료 방식은 위장 점막의 표면이나 위의 점액에 존재하던 균까지 치료 약물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제균 치료만으로는 손상된 위 점막을 복구할 수 없고, 유익균까지 제거되는 부작용이 있어 손상된 위 점막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상황이었다.

손미영 박사 연구팀은 3차원 위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헬리코박터균 감염 초기에 일어나는 위 점액세포 손상 기전을 규명하고, 감염으로 손상된 위 세포를 회복하게 하는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했다.

헬리코박터균이 체내에 침입 시 처음 자리 잡는 위 전정부(antrum)의 특징을 갖는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3차원 위 오가노이드 제작에 성공하며 헬리코박터균이 분비하는 세포공포화독소(VacA)에 의한 변화를 관찰하여 위 점막 세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현상을 밝혀냈다.

또 오가노이드 모델과 생쥐 모델에서 인산화효소(kinase) 저해제인 MLN8054가 VacA 독소뿐만 아니라 미생물 감염으로 손상된 위 상피세포를 회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규명하며 헬리

코박터균에 의한 위 손상 치료 후보물질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손미영 박사는 “그동안 헬리코박터균 관련 연구에는 주로 암 세포주나 마우스 모델이 활용되었는데 이번 위 오가노이드 기반 연구로 그간 한계로 지적되던 공간 특이성과 같은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며 “향후 오가노이드를 활용하여 인체 반응 예측을 통해 유효성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출하여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9월 26일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바이오메디에어리얼’ 온라인 판에 게재되었으며, 과기정통부 사업,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식약처 첨단 독성평가기술 기반구축사업, 생명연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세경 기자 selee@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뉴스1

현대건설 사우디 전력기술청 1조 송전선로 수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차세대 송전기술을 앞세워 1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사우디 전력청(SEC)에서 7억2500만 달러(한화 약 1조원) 규모의 ‘사우디 리야드-쿠드미 500kV 초고압직류(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리야드-쿠드미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리야드에 위치한 PP14(Combined Cycle Power Plant 14) 발전소에서 남부 해안의 쿠드미 지역을 잇는 총 1089km의 초고압직류송전선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쿠드미 지역에 인접한 369km의 1구간을 담당하며 완공 예정은 2027년 1월이다. 이번 건설되는 직류송전선로는 사우디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HVDC 2회선(Double Bi-pole) 송전선로 구조로, 전력량이 4000MW에 이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12일 “신재생에너지 그리드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고압직류송전선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사우디에서 새로운 송전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전지원 기자 jiw13@

예비부부 올리는 ‘스·드·메’ 갑질 3종세트 바로잡는다

공정위,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6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원하는 드레스 업체 선정하고 전화했는데, 플래너 없이는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드레스투어 하려는데 개별적으로는 안받아주네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패키지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깜깜이 계약’ 피해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등 18개 결혼준비

대행업체 이용약관을 심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들 약관을 심사한 이유는 ‘스드메’ 서비스 묶어서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개별 업체 서비스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스텝 서비스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보통 200만~300만원에 달해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크데, 여기에 더해 ‘옵션’이라는 형태로 만만치 않은 액수의 추가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옵션은 필수 항목인데도 따로 추가요금을 내야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최근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2%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공정위의 약관 심사 결과,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모두 똑같이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뒀다. 기본 제공하는 스텝

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30개 옵션을 뒤 이에 대해 추가요금을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필수옵션이 가격경쟁 대상이 되지 않아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가 계약에 앞서 전체 스텝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